



밥상보 · 손수건 보시하는 대덕화 보살의 사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고도산업사회로 치닫는 요즘처럼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때도 없다. 황금만능주의는 재물 앞에 부모, 자식도 존재치 않게 한다. 가정해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자리해 있는 존재가 있다. 어머니다. 이들은 스님이어도 스님에 앞서 자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의 모정불심을 더듬어 본다.

# “건강·장수 염원 한땀한땀 담았어요”

대덕화 보살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만든 밥상보.

열여섯에 시집가서 열아홉에 첫아들을 낳았다. 귀한 아들이었지만 어려서 시름 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다. 그 뒤로 내리 4남 4녀를 낳았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막내만 빼놓고 모두가 서튼을 넘기지 못했다. 이렇게 가슴에 묻은 자식이 모두 여덟이다. 어떻게든 막내만을 살려야 했다.

**“내 가슴은 자식을 공동묘지”**

“이 아이마저 잃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부처님을 찾았어요. 그저 일만하고 살아 기도가 될지도 몰랐는데 스님이 ‘나무아미타불’을 지성으로 찾으라고 해서 수명장수를 빌며 아들을 절에 맡겼습니다.”

제주 서귀포 불광사 주지 지범 스님의 속가 어머니 대덕화 보살(91·이순택)의 첫마디는 ‘수명장수’였다.

“전생에 업이 많아 가슴이 자식들의 공동묘지(가)가 되었다”는 대덕화 보살은 하나 남은 아들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신의 삶’ 모두를 바쳤다.

막내가 13살때 백양사로 출가하자 아들을 살리고자 절에서 ‘나무아미타불’ 정진을 했다. 절에서 가사불사가 있을 때면 만사를 제쳐두고 절에서 살았다. 스님들 법복인 가사를 짓는 바느질 한 땀 한 땀을 뜨면서 스님이 된 아들의 목숨이 하루하루 늘어나기를 기원하는 정성을 들였다.

어느 날, 가사불사가 끝나고 조계종정을 지낸 만암 스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번 불사에 보살님 정성이 유별나요. 큰 덕이 쌓여 후에 꽃으로 피어날 것이니 ‘대덕화’라 부르리다.”

예언 같은 스님의 말씀 때문인지 막내는 서튼도 넘어 현을 넘겼다.

아들 지범 스님은 “어머니의 정성이 제 불 보살님을 감동시켜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범 스님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다. 출가승이 되어서도 퓌박 대신 기타를, 엽불 대신 대중가요를 즐겨했다. 백양사 시절 도량석 <천수경>을 나훈아의 노래 가락에 얹어 읊을 정도였다.

그런 스님은 제주에서 ‘노래하는 스님’으로 본격적인 대중교화에 나섰다. 그동안 ‘부처님 마음’ 등 6장의 포교용 앨범을 냈다. 그 가운데 가장 애뜻한 정이 담긴 앨범은 ‘부모은중경’이다.

**9남매 낳아 8남매 가슴에 묻어**

**막내 출가 시키고 ‘나무아미타불’ 기도**

**노래 포교하는 아들 지범 스님 보며**

**남 위한 삶 발원 ... ‘바느질 보시’ 시작**



노안으로 바느질이 여의치 않지만, 90세의 대덕화 보살은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발원을 담아 손수건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어느 무대에서든 부모은중경을 가사로 한 ‘어머니 은혜’를 꼭 부르곤 한다. 이렇게 지범 스님은 불음포교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과 선사들의 시를 3-4분 간의 노래로 전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효과적인 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 주시고, 단명인 목숨까지 늘려주셨으니 어머니 뜻에 따라 대중에게 회향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

을 전하는 아들 스님을 보면서 대덕화 보살도 무언가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경하듯 만드는 손수건**

생각 끝에 바느질 보시를 하기로 했다. 바느질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바느질에 솜씨가 있었고, 젊어서 바느질 품을 팔아 가계를 이어왔던 터였다.

대덕화 보살의 바느질은 어디를 가나 유명했다. 남편과 함께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들은 손수건을 11명이나 남겨두었다. 도시에 살 때는 울방울방방 아이들을 키

우느라 바느질을 했다. 시집 장가가는 이 옷들의 혼수옷은 대덕화 보살의 차지였다. 기생집 여인들의 옷도 가족들을 살리는 일감이었다. 아이들은 크면서 삼촌인 지범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 가운데 삼촌을 따라 출가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임미 스님이다.

지범 스님이 노래포교로 불교대중화를 펼치고 있다면 조카 임미 스님은 불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비교 연구해 한 국불교를 세계에 퍼고자하는 학승(學僧)

남실을 4-5개씩 묶어 모양을 낸 후 꼼꼼한 바느질 마름질을 거쳐 ‘대덕화 보살의 고운 손수건’ 하나가 탄생한다.

**손에는 항상 염주와 바늘**

이제는 노안으로 바느질이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시간 이외에는 바늘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지난 4월 20일 백양사 곡우절에 참석한 동지마을 법현 스님(이천 서광사 주지일행)이 광주 대덕화 보살을 찾았다. 백양사 스님치고 대덕화 보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가 없기에 대덕화 보살의 집은 백양문중 스님들의 속가나 다름없다.

절에서 30여 명의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는 법현 스님이 “어머니, 그동안 만들어 놓으신 손수건이 있으면 다 주셔야겠어요. 우리 절에는 식구가 많아 한 두 개로는 없어요”라며 때를 썼다.

“있는 대로 다 가져가, 또 만들면 되지.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어. 스님이 모두 소원성취하고 수명장수하도록 잘 키워요”하면서 대덕화 보살이 스님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이세 노령의 어머니는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말끝에 향내 나고, 웃음끝에 꽃이 피고, 몸이 건강해서, 만인이 우러러 보는 큰 재물이 되어주시요’라며 서광사 아이들을 위한 축원도 덧붙였다.

글·사진 / 광주=이준업 기자



대덕화 보살이 동지마을 법현스님(맨 왼쪽)에게 자신이 만든 손수건을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 스님이 아들 지범 스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상표 등록

#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사용량 (kWh)	요금 (원)	사용량 (kWh)	요금 (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1,720
110	8,590	320	43,740
120	9,890	330	45,850
130	11,190	340	48,070
140	12,500	350	50,400
150	13,800	360	52,830
160	15,090	370	55,370
170	16,390	380	57,910
180	17,690	390	60,450
190	19,000	400	63,00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전화 031-791-8871 792-8867~8